

두 중국 도시 이야기**2**: 상해와 심양

일 시 : 2018. 03. 28.(수), 10:00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제29회 충청중국포럼

- ◆ ‘충청중국포럼’은 2015년 5월 출범 이후 충남도와 시, 군 중국교류 관련 업무 담당자의 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교류의 장으로 개최, 운영되어 왔음
- ◆ 이번 제29회 충청중국포럼은 국민대학교 박철현 교수를 초청해 ‘두 중국 도시 이야기2: 상해와 심양’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 ◆ 이번 포럼은 지난 번 상해를 중심으로 한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 동북3성의 최대 도시인 심양의 발전 과정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계획임.

■ 행사개요

- 주 제 : 두 중국 도시 이야기2: 상해와 심양
- 일 시 : 2018. 03. 28.(수) 10:00~12:0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연 사 : 박철현 교수(국민대학교)
- 참 석 :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중국교류업무 담당자, 그 밖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행사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개 회	사회: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인사말씀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10:05~11:35	발제 ▶ 두 중국 도시 이야기: 상해와 심양	박 철 현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11:35~12:00	종합토론 ▶발표자, 참석자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12:00	폐 회	

■ 박철현 교수 프로필

◆ 학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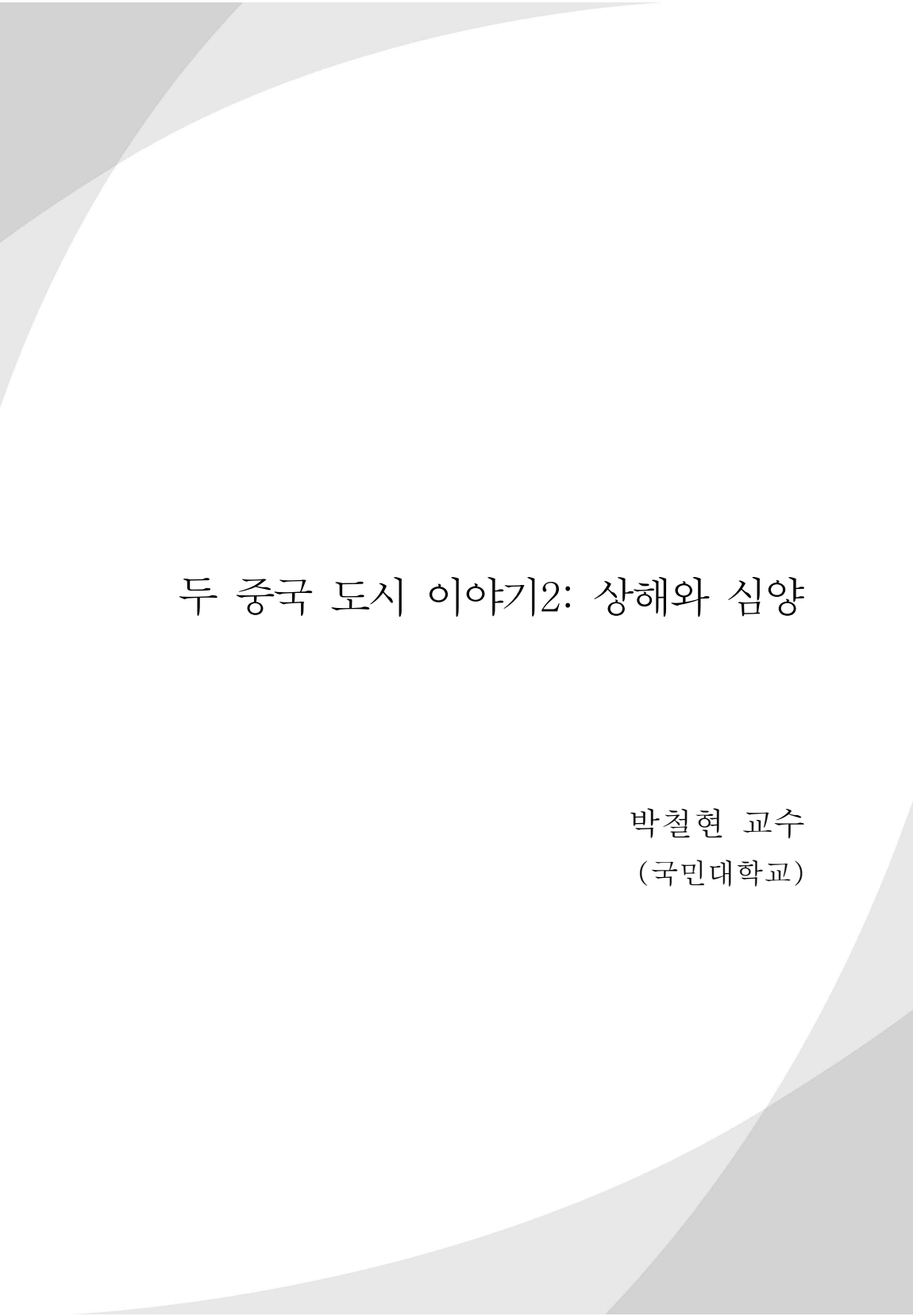
-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학사)
- ❖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중국지역연구(석사)
- ❖ 중국 인민대학교 사회학과(박사)

◆ 경 력

-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2012년 9월 ~ 현재)
-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2013년 3월 ~ 6월)
- ❖ 국민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사(2013년 9월 ~ 12월)
-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강사(2013년 3월 ~ 현재)
-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강사(2014년 9월 ~ 12월)
-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2015년 3월 ~ 현재)
- ❖ 『역사비평』 편집위원, 『만주연구』 편집위원(2016년 2월 ~ 현재)
-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연구센터 공동연구원(2017년 9월 ~ 현재)

◆ 연구실적

- ❖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1, 2』(역음)
- ❖ 『다렌연구: 초국적 이동과 지배, 교류의 유산을 찾아서』(공저)
- ❖ 『특구: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공저)
- ❖ 「중국 개혁기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스마트시티 건설: 상해 푸둥신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 「중국 동북 지역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노후공업도시’」
- ❖ 「개혁기 위계적 시민권과 중국식 도시사회의 부상」
- ❖ 「중국의 도시재생과 기층 사회관리체제의 변화: 베이징 ‘역사문화보호구’의 도시 거버넌스」
- ❖ 「중국 개혁기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변화: 1990년대 상해 푸둥 개발의 공간생산과 지식」
- ❖ 「개혁기 상해 도시재생의 문화정치: “석고문” vs “공인신촌”의 논쟁을 중심으로」



두 중국 도시 이야기2: 상해와 심양

박철현 교수
(국민대학교)

두 중국 도시이야기2 : 심양의 개혁개방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박철현

2018년 3월 28일





심양과 철서구

Ad Vitam présente
Grand Prix - Festival International du Documentaire - Marseille 2003
Montgolfière d'Or - Jury Documentaire - Festival des 3 continents - Nantes 2003

A L'Ouest des Rails

Un film en 4 parties de Wang B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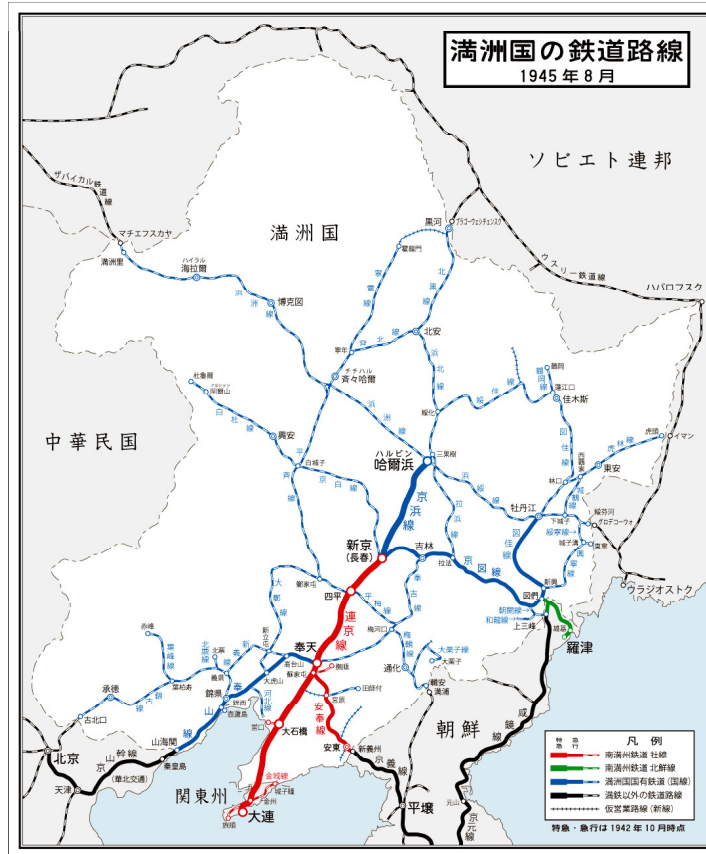
Rouille I Vestiges Rails
Rouille II

Directeur de la photographie / Monteur : Wang Bing - Assistant monteur : Zhang Huimin
Consultant montage : Lin Xudong - Chef Monteur : Adam Karby - Script : Li Hongbin
Monteur son : Han Bing, Chen Chen - Producteur : Zhu Zhu - Ventes Internationales: Vincent Wang
Production: Wang Bing Film Workshop - Co production: Hubert Bals Fund - Distribution: Ad Vitam

AD VITAM

동북삼성(東北三省)





만주국의 철도노선

철서구의 역사

- 1906년 러일전쟁 후 일본이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장춘(長春)과 대련(大連)을 잇는 철도의 권익을 확보
- 철로용지를 철도부속지로 바꾸고 장춘과 대련 사이 광대한 영토 점유
- 1913년경부터 "철로의 서쪽(鐵西)"에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
- 1938년 1월1일 부터 이 지역은 철서구(鐵西區)로 확정
- 1945년 8월까지 철서구는 침략전쟁을 위한 군수공업과 중공업 중심의 일본자본의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1951~1961년 시기 소련이 지원한 "156공정(工程)" 중 24개가 요녕성에 집중되고 그 중 3개가 철서구에 자리 잡음
- 1953~57년 "제1차 5년계획" 기간 철서구는 기계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신중국" 건설의 기반이 되는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역
- "제2차 5년계획" 기간 동안 전국 중점공업기지 건설 예산의 1/6이 철서구에 투입
- 장비제조업을 기초로 하는 국유기업과 관련설비가 갖춰진 중국 최대의 공업기지
- 1980년대 개혁기 초기까지 철서구는 중공업 위주의 중대형 국유기업과 소속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지역





해방 전 철서구

동북 노후공업기지 개조

- 동북지역은 개혁기 탈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에 적합한 구조전환이 지연
- 중대형 국유기업이 탈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부적응한 결과, 공장은 조업중지, 노동자는 “하강(下崗)”, 정부 재정수입 감소, 생활수준 하락
-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중화학공업 위주의 중대형 국유기업이 큰 비중
- 개혁기에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징이 현저
- 1980년대 일련의 국유기업 개혁조치로 기업 경영자율성 제고와 노동자 지위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

- 2002년 철서구와 심양경제기술개발구가 합서판공(合署辦公)을 통해서 철서신구(鐵西新區)가 됨
- 2004년 동북 노후공업기지 개조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동북진흥(東北振興) 정책 실시
- 사회주의 시기 상징이던 심양야련창(瀋陽冶煉廠)의 100m에 달하는 3개의 굴뚝을 철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철서구 중대형 국유기업의 철거이전이 시작
- 2007년 중국 국무원으로부터 “노후공업기지 조정개조 및 장비제조업 발전 시범구” 칭호를 받고 노후공업기지 개조와 진흥의 시범지역이 됨
- 2009년 철서구에 있던 400여개의 공장부지는 상업용 건물과 공업문화유산(工業文化遺產) 지역이 됨

동북 국유기업 개혁 지연의 원인

- ▶ 철서구를 포함하는 동북지역은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실체적 상징적 기반
- 동북지역은 사회주의시기 중국 전체 2차산업의 1/4을 차지, 중화학공업 위주, 중대형 국유기업에 소속된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이 1952년 12월 완공된 신중국 최대의 “공인촌(工人村)”에서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면서 거주
- 중화학 공업 위주의 중대형 국유기업과 “선진적” 노동자 계급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동북지역은 “동방의 루르”, “공화국 장비부”, “공화국 공업장자”로 불림
-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치적 상징적 아이콘인 동북지역에 대해서 시장화 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민감한 사안

▶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사회정치적 의미

- 개혁기 이전 중국은 “기업이 사회를 담당한다”라고 할 정도로 기업은 소속 노동자에게 하나의 사회와 같은 역할
- 중국 사회주의 전개과정에서 기업은 당조직을 통해서 소속 노동자와 당-국가를 잇는 정치적 역할과, 주택 의료 보험 육아 문화활동까지 책임지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담당
- 동북지역은 단위체제의 전형성이 두드러진 곳으로, 개혁기에도 과거 단위체제의 유산이 강고

공간생산 전략

동반서건(東搬西建)과 합서판공(合署辦公)

- 동반서건, “동쪽에 있는 기업을 서쪽으로 옮겨 짓는다”
 - 합서판공, “두 개의 다른 편제와 직책을 가진 당정(黨政) 기구가 업무대상과 업무성질의 상호 유사성이나 다른 기타 이유로 동일한 지점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두 기구의 인원과 자원을 상급기관이 융통성 있게 지휘하는 것”
 - 동북진흥 정책 직전인 2002년 철서구는 “하강의 도시(下崗之城)”으로 불릴 정도로 국유기업의 파산과 노동자 해고가 정점에 달함
 - 1100여개 국유기업의 자산부채율은 90%, 전체 30여만명의 노동자 중 절반이 하강상태
-
- 철서구는 “합서판공”으로 시급(市級) 관할권을 보유하게 되고, 토지사용권 판매로 인한 수익을 유보
 - 2001년 경 심양시 중심지역 토지사용권은 1m² 당 2000위안 이상이나, 철서구는 500위안에 불과
 - 토지사용권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장부지를 이전하고 구 정부의 재정수익을 확보하는 “동반서건” 방식은 철서구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핵심전략
 - 동반서건은 단지 노후공업기지 개조에 따른 재정적 문제의 해결방법만이 아닌, 보다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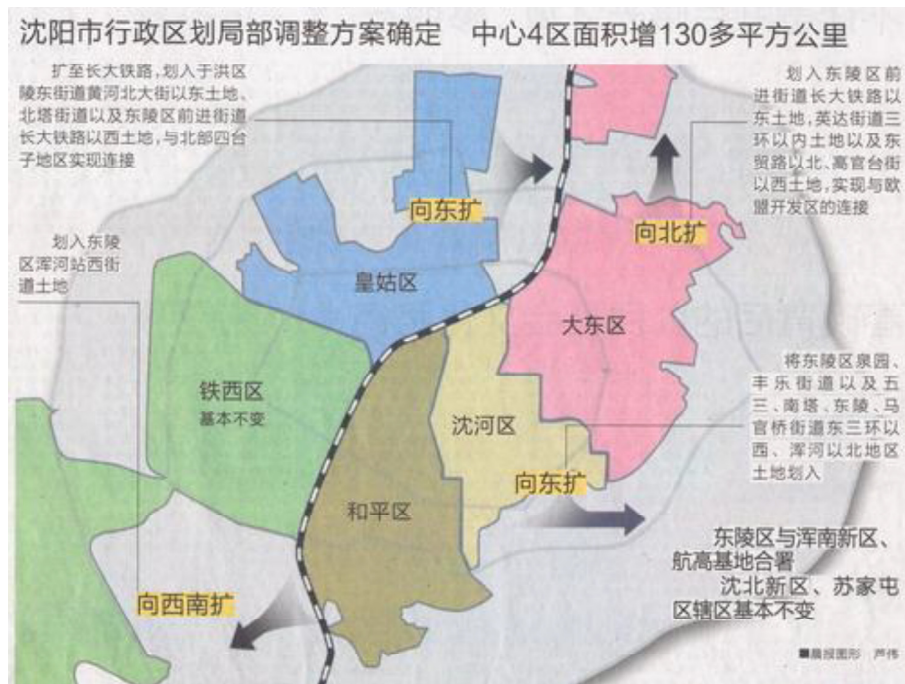
공간생산 전략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

▶ 동반서건: 공간이전 통한 “축적의 위기” 탈출 전략

- 기존 노후공업기지는 경제적 실체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사회정치적 실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축적의 위기”는 단지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
- 따라서, 동반서건은 공간이전을 통해서 기업의 구조조정(重組)과 소유권 제도개혁(產權改革)을 진행하는 것
- 그 정치적 사회적 최종목표는, 동북지역의 강고한 “전형단위제”를 해체하고 “사구(社區)”를 건설하여, 탈사회주의 시기 시장경제에 적합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 합서판공도 단순히 행정적 효율 제고를 위한 행정편제 조정이 아님

- 합서판공은, 단순히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의 구조조정의 과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능동적 주도로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사회정치적 주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함
- 개혁기 지방정부의 “도시기업가주의(urban entrepreneurialism)”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
- 토지소유권, 각종 인허가권, 행정권력 등을 장악한 기업가주의 도시정부는 중국식 성장연합(growth coalition 增長聯盟)을 주도



심양 행정구획도



철서신구 발전개념 기획방안



철서구 발전 계획도

신동북현상

- ▶ 동북현상
1990년대 중후반 발생한 기업도산 노동자해고로 지역전체가 쇠퇴하는 현상; 대응책 "동북진흥" 정책
- ▶ 신(新)동북현상
최근 발생한 것으로, 도시 GDP 성장률 급감, 인구감소 등; 동북지역 출산율은 한국일본 보다 낮음
- ▶ 「길림보고(吉林省經濟結構轉型昇級報告)」
월드뱅크 전 부총재 북경대학 교수 린이푸가 이끄는 팀이 내 놓은 길림성 경제구조 변화 및 업그레이드 정책보고서;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혁"
→ 전국적 범위에서 강력한 반론에 직면
; 중국제조업2025, 공급측개혁...

<http://www.ajunews.com/view/20170828110449611>

결론

- ▶ 상해 푸둥신구
: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개방 실험
→ 국가급 신구(1992), 종합총괄개혁시험구(2006)
자유무역시험구(2013)
- : 지방정부 리더십의 역할
→ 주룽지, 황쥐
- : 실험성과의 확산
→ 푸둥신구의 설계자 황치판(1952년생, 푸둥신구 관리위원회 부주임, 2001년 충칭시 부시장 및 시장)과 "충칭모델"

▶ 심양 철서구

: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중공업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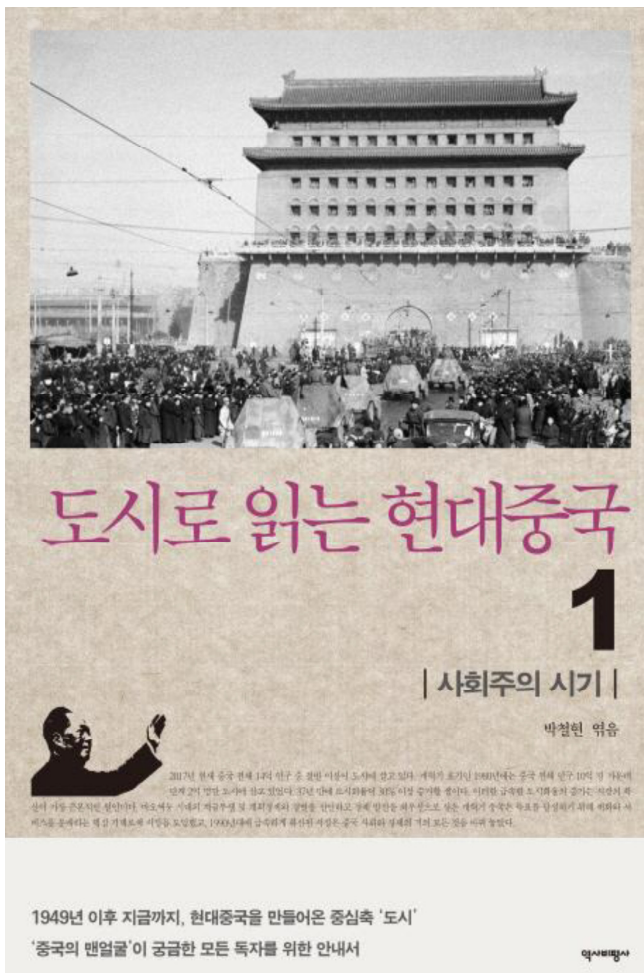
→ 1990년대 중후반 동북현상

: 중앙과 지방 차원의 대응

→ 동북진흥전략, 동반서건 합서판공

: 최근 신동북현상

본질적인 문제 미해결, 지역쇠퇴 지속, '동아시아의 변경'으로서의 동북지역의 특수성



1부 | 국가와 도시

도시로 간 농촌혁명가들과 '신민주주의혁명'

수도 베이징의 '도심' 정하기—'양진 방안'의 제기와 좌절

공인신촌엔 누가 살았을까—상해 차오양신촌의 사회주의 도시 개조

새로운 중국의 새로운 노동자 만들기—선양시 노동경쟁 캠페인과 공인촌

2부 | 공간의 생산, 도시의 실험

'국가'와 '사회'의 만남—베이징 가도 공간의 '지도'와 '자치'

사회주의 도시와 인간을 디자인하다—'도시인민공사'라는 실험

정치, 도시를 옮기다—내륙으로 간 중공업 도시 판즈화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초축적과 농민의 희생

3부 | 도시와 농촌, 이동과 상상

'죽의 장막'과 '은둔의 왕국'을 넘어—사회주의 시기 북중 국경 지역 조선족의 이주

흔들리는 청춘—루야오의 '도농교차지대'

사회주의 시대 노동자는 어떻게 말하는가—자장커의 <해상전기>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2

| 개혁기 |

박철현 역음



2017년 현재 중국 전체 1억 4천 5백만 명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 개혁기 초기인 1980년에는 중국 전체 인구의 10%의 땅에서만 2억 2천 5백만 명이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37년 만에 도시화율이 30%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율의 증가는 시정의 확장이 가능 한 토대를 마련했다. 자오저우가 차례로 '개혁개방' 및 '개혁개방'의 실험을 삼킨다고 할 때, 개혁개방은 중국을 세계로 진출시키기 위해 선택된 전략으로 존재하는 핵심 전략으로 등장했고, 1980년대 급속하게 확산된 개혁개방의 결과로 얻은 것들이다.

1949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국을 만들어온 중심축 '도시'

'중국의 맨얼굴'이 궁금한 모든 독자를 위한 안내서

역사비평사

1부 | 도시화, 신형도시화

도시화를 통해 본 개혁기 중국

급속한 도시화의 아이콘, 선전—이중도시, 이민도시로서의 발전
중국에서 도시민이 된다는 것—위계적 시민권과 서열화

2부 | 공간의 정치경제

국제대도시이기를 거부하다—홍콩의 도시공간운동

옛 주택은 옛 정책, 새 주택은 새 정책—상해의 주택제도 개혁

자본과 강탈의 도시, 광저우

토지, 욕망에 지다—공공토지 사유화 경향과 대책

항저우, 관광도시에서 스마트 도시로

3부 | 노동과 불평등

도시의 '사회적' 불평등 속 농촌 출신 청년 노동자의 삶

도시 사회관리와 노동체제 개혁의 딜레마

노후공업도시로 풀어본 동북 문제

도시를 뒤덮은 담장—게이티드 커뮤니티와 도시 공간의 불평등

4부 | 네트워크와 예외 공간

초원과 도시의 동맹—윤리적 소비와 사막화 방지

도시 개발 속 스러져간 동향촌—베이징 성중촌의 어제와 오늘

보론(補論)

상하이와 특구(特區)

▶ 1980년대 특구

1980년 8월, 1988년 4월에 '경제특구'로 지정된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샤먼(廈門), 하이난다오(海南島)

→ '체제외(體制外)' 개혁공간

: 전국적 범위에서 시장경제 실험이 기존체제에 가질 부정적 영향 우려, 체제 바깥에 특정 공간 설정, 집중적 시장경제 실험

▶ 1992년 푸둥 '국가급신구(國家級新區)'

① 위상

"국가의 중대한 발전과 개혁개방의 전략적 임무" 담당하는 특구 신구의 성립, 개발, 건설은 모두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결정

국무원이 일방적으로 지정, 특혜와 우대정책 실시

국가급신구는 '부성급(副省級)' 자주권

텐진 빈하이신구(滬海新區)지정(2005)전까지 중국 유일 국가급신구

② 역할

1990년대 도시부문, 국유기업, 복지, 노동 개혁을 위한 실험장

'경제'특구가 아닌 '종합기능' 특구

경제만이 아닌 정부, 행정,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전략적 실험장

▶ 2005년 푸둥 종합총괄개혁시험구(綜合配套改革試驗區))

① 위상

국가급신구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면적 차지

성급, 부성급, 지급(地級) 등 다양한 행정급별

해당 지역이 신청하면 국무원이 심사 통해 비준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하여 성립

다양한 유형(개방개발, 도농종합개혁, 자원절약, 환경, 신형공업화, 농업현대화, 자원형 경제전환)

② 역할

2001년 중국은 WTO 가입, 글로벌 자본주의 규범과 제도를 수용

중국이 글로벌 자본주의에 전면적으로 편입되던 시기에 설치

종합개혁의 선도실험지역의 성격

'국가전략적 차원'의 목적인 국가급신구보다 훨씬 종합적 전면적

▶ 2013년 푸둥 '자유무역시험구(自由貿易試驗區)'

① 위상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주임은 '부성급(副省級)'
소속 성(省) 공산당위원회가 아닌 공산당 중앙조직부에서 임면
부성급 시(市)인 난징시(南京市) 시장과 동급의 지위

② 역할

80년대 경제특구는 우대정책 통한 부족한 자본과 기술 수입 목적
자유무역시험구는 '제도혁신'

즉 '정부직능 전환', '투자영역개방 확대', '무역발전방식 전환', '금융영역 개방창신 심화', '법제영역 제도보장 완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표되는 '글로벌 자본주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필요한 제도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설치

'개방'보다는, '정부직능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에 중점

심양과 스마트도시

▶ 건설전략

'동북진흥' 정책을 스마트도시 건설 동력으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정부서비스 제공능력 제고, 시민 생활편의
7개 플랫폼(휴대폰 접속 정부포털, 도시인프라 네트워크, 도시자원
클라우드, 도시관리 포털, 도시인프라 데이터, 감시카메라 시스템)
기존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전환

▶ 건설 추진과정

스마트도시 건설 위한 정부기구 창설

스마트도시 총체규획 확정, 기초시설 확충(브로드 밴드 속도 제고,
네트워크 및 플랫폼 강화, 유선 TV망과 와이파이 설치, 시정부 차원
의 '스마트도시 종합관리플랫폼' 및 '클라우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시민생활 편의 도모, 공공서비스 효율 제고,
관련 산업발전 유도

▶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 육성 정책

① 빅데이터 기초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제품(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빅데이터 운영관리

빅데이터 서비스(공업, 농업, 상업)

클라우드 제품

모바일 인터넷

물류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② 현황

기존 중공업 위주 제조업을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빅데이터 관련산업 발전은 중요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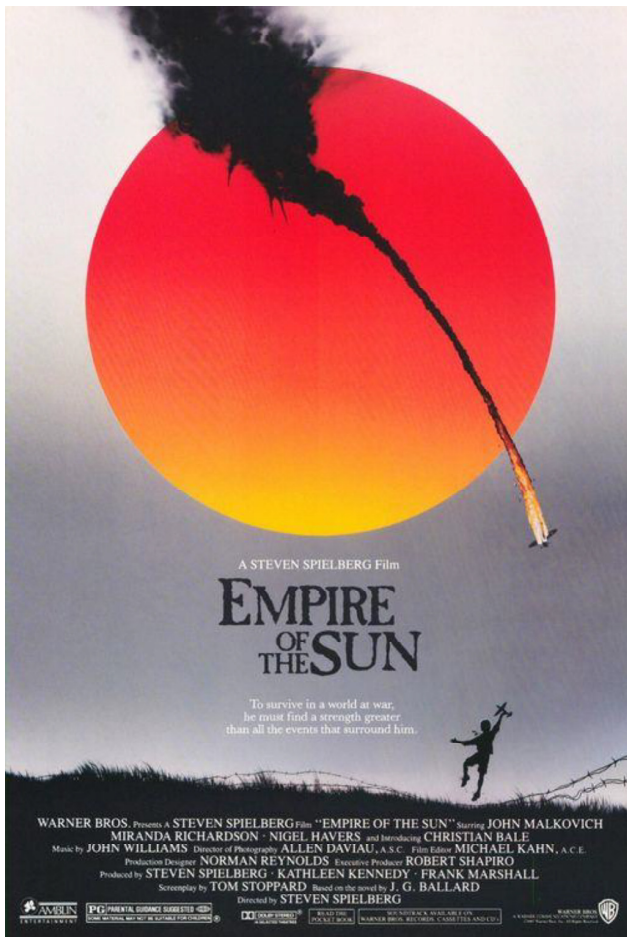
기존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스마트도시 건설은 상호보완적 효과
시정부 산하에 '빅데이터(大數據) 관리국' 설치'

구정부, 현정부 마다 빅데이터 관리 산하기구 설치

스마트도시 시범구, 훈난신구(渾南新區)



추천 도서, 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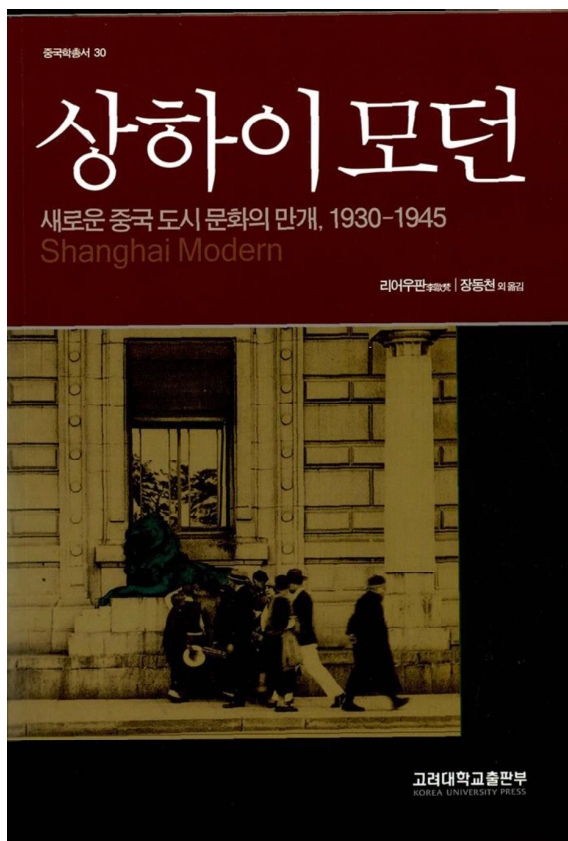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636>

1941년 상해를 침공한 일본군과
외국인 포로수용소의 소년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75502>

1949년 혁명 이후 상해, 홍콩, 타이완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한 상해 출신 사람들이 기억하는 17가지의 상해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3017599

상해 모던, 새로운 중국 도시 문화의 만개: 1930-1945

사회주의 건국 이전 "가장 화려하고 코스모폴리탄적"이었던 상해의 복합적이고 매혹적인 모습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1101>

1940년대 일본군 지배 하의 상해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상해시 개황(2017)

일 반 사 항	자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長江 하류 삼각주에 위치, 黃浦江이 시내를 관통 ○ 면적 : 6,340.5km² (중국전체의 0.06%, 서울시의 10.5배) * 중국내 3번째 큰 섬 崇明島(1,041km²) 포함 ○ 연평균 기온: 17.6℃ (최고 40.3℃, 최저 -1℃) - 연평균 강우량 : 1,302mm(우기 : 5-9월)
	인 구	○ 2,418만 명
	행정구역	○ 16개區 (浦東新區, 黃浦區, 靜安區, 長寧區, 崇明區 등)
	주요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서 기 : 리창(李强) 1959년생, 남, 2017.10 취임, 前 江蘇省 당서 ○ 시 장 : 잉용(應勇) 1957년생, 남, 2017.1 취임, 前 上海市 부시장 ○ 人大주임 : 인이취이(殷一璀) 1955년생, 여, 2013.2 취임, 前) 上海市 당부서기 ○ 정협주석 : 똥원후(董雲虎) 1962년생, 남, 2018.1 취임, 前) 上海市 홍보부장
경 제 현 황	주 요 경제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 3조134억위안(2016년 대비 6.9%증가) ○ 1인당 GDP : 12.5만 위안(약 1.98만 USD) ○ 교역 : 3조 2,237억위안(수출 1조 3,120억위안, 수입 1조 9,118억위안)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 170.1억 달러('16년 대비 -8.1%)
	주요산업	○ 금융, 항공·해운, 정보통신,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주 요 정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4. 상해자유무역시험구 3.0 발표하는 등 지속 확대 시행 - 외국인 투자가능 분야 확대, 무역절차 간소화, 금융자본시장 개방(FT 계좌(자유무역금융계좌) 시행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 추진 ○ <상해도시총규획> 규획기간(2017-2035), 경제·금융·무역·해운·과학기술혁신 등 5대 중심센터구축, 장내외 개방 지속 확대, 張江국가자주혁신시범구 발전, 녹색성장 발전방식 도입, GDP 성장률 6.5%, 상주인구 2,500만명 제한,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70%까지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 ○ 글로벌과학기술혁신센터(아시아 실리콘벨리) 조성 추진(2015.9 발표), 2016년 가속화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인재 유치, R&D예산 확대, 창업혁신단지 조성 등 추진

1. 교역 및 투자

가. 교역 : 2016년 교역액은 227억 1,300만 달러

- (수출입) 수출은 21.2%, 수입은 11.8% 감소
- (무역흑자) 90억 9,700만 달러
 - * 한국-상해시 교역액은 중국의 대한국 교역 총액의 8.9%를 차지
 - * 성시별 대 한국 교역비중이 주요 5개 지역: 광둥성(24.6%), 장쑤성(21.7%), 산둥성(12.2%), 상해시(8.9%), 저장성(5.2%)

나. 투자

- (신규법인수) 2016년 신규 법인 설립수는 126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1.3% 하락
- (투자금액) 동 기간 투자금액은 2.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

표1. 우리나라의 대(對)상해시 무역투자 규모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무 역	수 출 (백만 달러)	17,703 (26.5)	16,596 (-6.3)	16,448 (-0.9)	18,437 (12.1)	20,177 (9.4)	15,905 (-21.2)
	수 입 (백만 달러)	6,829 (23.4)	6,520 (-4.5)	5,519 (-15.4)	6,418 (16.3)	7,716 (20.2)	6,808 (-11.8)
	무역수지 (백만 달러)	10,874	10,076	10,930	12,019	12,461	9,097
투 자	법인 수 (개사)	167	137	132	131	142	126
	투자금액 (백만 달러)	315	275	157	243	301	29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다. 상해시에 진출한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기업

- 지방자치단체(10개) : 부산, 대구,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정부유관기관 : KOTRA, 무역협회, aT, 무역보험공사, 관광공사, 해양수산개발원,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협, 중소기업중앙회 등
- 금융기관
 - 상해시 및 인근지역 주요도시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은 은행 9개, 증권·투자회사 9개, 보험회사 3개, 카드사 1개

표2. 상해시 및 인근지역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

구분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계
은행	한국, 산업, 우리, 신한, 하나, 국민, 대구, 수출입은행	기업, 우리, 신한, 하나, 국민은행	-	9
증권회사	현대, 대우, NH, SK	-	-	4
투자회사	미래에셋, 한국투자, 신한, 하이자산, KTB네트워크,	-	-	5
보험·카드	삼성재산보험, 무역보험공사, BC카드	삼성재산보험	한화생명	4

(3) 주요 투자진출기업 (6천여개 추정)

- 상해시 : 롯데, SK 등 지역본부, 삼성물산 등 상사, 아모레퍼시픽, 농심 등 생산판매법인, 이마트 등 유통업체
- 상해시 인근지역 :
 - * 강소성 : 삼성전자/반도체(소주), 포스코(장가항), LG전자·금호타이어(남경), SK하이닉스(무석), 기아차(염성) 등 생산공장
 - * 절강성 : LG생활건강(항주), LG화학, 한화, 삼성중공업(영파), 한국타이어, 효성스판텍스(가흥) 등이 있고, 온주에는 안경제조업체, 이우에는 소규모 무역상 진출

2. 교민

- 교민수(재외국민) : 약 3.27만명(2016.12 기준)
 -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우리기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한인사회가 조성되기 시작, 매년 규모가 증가하다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
 - 중국 법규상 외국인의 단체결성이 허용되지 않아 합법적인 한인대표 기관은 없으나, 상해 한국상회(1993.6 발족)가 그 역할을 수행

표3. 상해시 및 인근지역의 교민·조선족 수

구분	재외국민(명)				조선족(명)
	영주권자	체류자		계	
		일 반	유학생		
상해시	58	21,439	11,233	32,730	45,822
강소성	67	14,541	4,006	18,614	26,060
절강성	6	3,500	4,146	7,652	10,713
총 계	131	39,480	19,385	58,996	82,595

- 상해한국학교(1999.9.1 개교)

- 학생수 : 1,395명(초등 589명, 중등 338명, 고등 468명)

※ 강소성 無錫(2006년 개교), 蘇州(2014년 개교)에도 한국학교 소재

- 교민언론 : 상해저널, 상해경제, 상해한인신문, Edu뉴스 등 6개 교민지

- 종교단체: 개신교 15개 단체, 천주교 2개, 불교, 원불교 각 1개 종교단체 활동 중

※ 중국은 종교비자 불허

3. 지방자치단체 교류

- 부산시와 자매 도시 관계
 - － 구(區) 차원에서는 루완구(盧灣區)-부산 영도구, 바오산구(寶山區)-서울 금천구, 홍커우구(虹口區)-부산 동래구, 청푸구(靑浦區)-충남 보령시
- 전라남도, 전라북도와의 우호 교류 관계

4. 독립·역사 유적

가.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臨政廳舍)



-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상해시로 건너간 독립투사들이 활동한 거점
- 89년 상해시 지하철 건설계획에 의해 철거위기에 있다는 언론보도로 관심 고조
- 90.02 상해 시정부, 루완구(現 황푸구) 문물보호 중점 174호로 지정
- 92.02 삼성물산, 상해시 루완구 문물보호관리소 복원합의서 체결
 - － 삼 성 : 복원 및 주민이주 비용 지원(30만불)
 - － 중국측 : 복원후 관리
- ※ 한·중 미수교로 민간기업인 삼성물산에서 추진
- 2001.12.19 임정청사 확장 보수 재복원 기념식
 - － 독립기념관측이 56만불 투입
 - － 현재 대지면적 244㎡, 연 건축면적 483㎡
- 소재지 : 上海市 黃埔區 馬當路
- 규 모 : 연립주택형 3층 건물로 건축면적 145㎡
- 임시정부 사용기간 : 1926.12.1~1932.5.3
 - － 당시 임정수반 : 홍진, 김구, 이동녕 선생
- 규 모 : 연립주택형 3층 건물로 건축면적 145㎡
- 임시정부 사용기간 : 1926.12.1~1932.5.3
 - － 당시 임정수반 : 홍진, 김구, 이동녕 선생
- 개방시간 : 09:00-11:30, 13:30-16:30

나. 매헌(梅軒) : 루원공원에 위치한 윤봉길 의사 기념 정자(亭子)



- 1932.4.29 일본침략군이 상해사변 전승 축하식 겸 일본천황 생일 축하의식을 거행하던 홍커우공원(現 루원공원) 현장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 “시라가와” 총사령관 등 일본의 주요 지휘관을 살상케 한 현장
 - 윤의사는 현장체포, 1932.12.19 일본에서 25세를 일기로 순국
- 1994.4 상해시 홍커우구가 노신동상 우측 10m 지점 호수옆에 윤봉길 의사 기념 정자 (4각형의 2층 건물, 68㎡) 및 기념비(높이 1.5m, 폭1.4m의 자연화강석) 건립
 - 1994.8 기념정자에 「매정(梅亭)」 현판 부착, 윤의사의 본명은 우의(禹儀)이며, 아호는 매헌(梅軒)이고, 봉길(奉吉)은 별명
 - 1994.8 매정 주변을 매원(梅園)이라고 명명하는 안내판을 정자 입구에 설치
- 2003.12 매정내 「윤의사 생애 사적 전시관」 개관, 윤의사 흉상 설치
- 2009.4 윤의사 기념정자 매정의 명칭을 윤의사 아호인 매헌으로 변경
- 소 재 지 : 上海市 虹口區 四川北路聶愛支路 280號

출처: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cn-shanghai-ko/brd/m_494/view.do?seq=12999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심양시 개황

가. 개황

- 기본특징 : 요녕성 행정, 경제, 문화교육의 중심(성도)
- 자연조건
 - 면적 : 12,980km²(市区 면적은185km²)
 - 기후 : 온대 계절풍 기후 (연평균온도 6.2-9.7℃)
- 인구 : 829만명(2016년)
- 주요 행정구역 (10 시구, 1 현급시, 2 현)
 - 沈陽市區(10) : 和平區, 沈河區, 大東區, 皇姑區, 鐵西區, 蘇家屯區, 渾南區, 于洪區, 遼中區, 沈北新區
 - 縣級市(1)·縣(2) : 新民市, 康平縣, 法庫縣
- 경제현황(2016년)
 - GDP : 7,280억 위안
 - 산업별 GDP : 1차 266억 위안, 2차 2,136억 위안, 3차 3,058억 위안
 - 1인당 GDP : 65,851위안(\$10,289)
 - 고정자산투자 : 1,632억 위안(↓69.4%)
 -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 36,664 위안(↑7.1%)
 - 농민순수입 : 13,498 위안(↑7.8%)
 - 외자유치 : 8.2억 달러
 - 대외수출입총액 : 113억 달러(↓19.3%)
- 지방 정부조직
 - 시위서기: 이롄홍(易炼红)
 - 시 장: 장유위이(姜有为)
 - 인대 주임: 판리궈(潘利国)
 - 정협 주석: 한똥타이(韩东太)

출처: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http://overseas.mofa.go.kr/cn-shenyang-ko/brd/m_580/view.do?seq=1143782)



충청중국포럼 소개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청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청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론 충청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레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동향과 진단’,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청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회차	일시	세미나 주제	강사
1회	2015.5.26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철강도시의 미래	‖강희정(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회	2015.6.25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김한수(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3회	2015.8.26	‖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4회	2015.9.14	‖한중3농포럼	
5회	2015.10.28	‖중국 신형도시화와 3농문제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리홍보(중국쿤밍이공대학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박사)
6회	2015.11.25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한광수(금강대학교 총장)
7회	2016.1.27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이경복(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
8회	2016.2.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 유형과 대응전략	‖양광식(광양자유무역청 투자유치팀장)
9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공주대학교 교수)
10회	2016.4.20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11회	2016.5.25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조현규(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주중한국 대사관/주대만한국대표부 무관)
12회	2016.6.29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	‖고두환(공정여행사 공감만세 대표)
13회	2016.8.31	‖일대일로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14회	2016.9.28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5회	2016.10.26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특허청 과장, 前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16회	2016.11.30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 의 대응전략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17회	2017.1.18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고정식(배재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18회	2017.2.22	‖교육과 해외인재유치를 통한 중국의 발전전략	‖구자역(서경대 인성교양대학 학장)
19회	2017.3.29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 옌타이(烟台)·펑라이 (蓬萊)의 포도와 와인산업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20회	2017.4.25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와 전략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1회	2017.5.30	환황해권 지방외교 활성화 합동 워크숍	
22회	2017.6.29	2017년 충남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 소개	조광옥(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23회	2017.8.30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홍인표(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교수, 前경향신문 부국장)
24회	2017.9.25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발전: 중국 현대 농업 정책의 해독	원테권(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 원장/지속가능발전고등연구원장)
25회	2017.11.29	사드 이후의 중국문화산업 전망	이건웅(차이나하우스 대표)
26회	2017.12.13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세미나	
27회	2018.1.31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원식(중국 북경대학교 박사)
28회	2018.2.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1: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29회	2018.3.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2: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